

김호석 화백의
화폭 속 선지식
전강 스님 후기

치열하게 산다는 것 자체가 '법문'

예술은 모순이다.

나는 그림에서 어떤 뜻을 표현하는데 모순을 생각하고 상충된 것의 조화를 구현하려 노력했다. 서로 맞서는 대립은 생성이고 긴장이며, 힘이다. 모순은 '공존' 이다.

선이 악이고 악이 선이다. 창조와 동시에 부정이 있고, 상승과 동시에 추락이 있다. 상반된 것이 '원융무애' 이다. 모든 가치의 상대성을 중시한다. 중도의 진리이다.

또한 예술은 역설이다.

나는 그림에서 어떤 의미를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고자 했다. '역풍자' 가 그것이다. 역풍자란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공격성을 지닌 풍자이면서, 거꾸로 풍자의 대상이 풍자를 즐기는 주체 즉, 풍자화를 풍자하는 것이다. 이는 원효의 화쟁 사상과 헤겔의 변증법에서 간취되는 바이다. 주와 객이 부정과 부정을 통해 새로운 세계로 지향하는 것이다. 대립과 모순이 하나로 꿰뚫어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는 것, 이 대립 · 모순되는 것들은 이질적이다. 그러나 모든 현상을 하나로 통합시킨다. 때론 대상에 대해 비웃고 공격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깨닫고 너와 같이 높은 정신으로 나아간다. 풍자 정신은 높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단순한 사실정신의 차원과는 다르다. 모순과 역설, 그리고 역풍자는 생명의 깊은 원리로 이해하고 있다.

나는 스님의 말씀을 듣고 예술의 어법과 스님의 어법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모습이 보였다. 폐술이 그것이다. 순전히 내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스님이 쓰시는 언어 체계와 논리 방식, 그리고 수행 가르침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한다.

폐술은 말 그대로 못쓰게 만든 후 스스로를 일어서게 만드는 고도의 방편이다. 원래 폐술은 한방에서 쓰는 용어중 하나이다. 병이 깊어 고치기 힘든 경우 사용하는 극단의 처방이다. 우선은 그 병을 더 아프게 유도하여 결국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 도저히 뜸을 떠서는 안 되는 환자에게 뜸을 떠서 환부를 덧나게 만드는 등의 처방이 그것이다. 아픔은 죽음의 끝단까지 가게 되면 그 순간 다시 소생한다. 그 끝단까지 몰고 가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죽이는 행위를 할 수 있다면 살릴 줄도 알아야 한다. 생명의 경계를 알지 못한다면 폐술은 가능하지 않다. 스님은 끊고 죽이면서 동시에 살리는 처방을 알고 계신 것으로 보인다.



전강 대선사 진영의 뒷면 배채 상태

인류 역사상 세계의 대문호들은 소리를 듣지 않았다. 대신 들리지 않은 소리를 들었다. 일반적으로 소리는 자기 욕심, 자기 울타리에만 몰두해 있으면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법이다. 그러나 스님은 또 다른 과거의 역사와 다양한 타자들의 소리까지를 호명하여 말씀해 주신다.

의미는 뜻으로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게 한다. 내용은 꽉 채울수록 독선으로 흐르거나 단선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의미는 비우는 것이 더 어렵다. 비우면 자기와 타자들이 웅성웅성 거리며 수많은 존재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다종다양한 타자들의 소리를 통해 의미를 파악 한다. 소리가 끊어진 자리에서 다시 소리가 이어진다. 여백에서 소리가 난다. 여운이 길다. 이어지는 것, 그 속에 근원적인 무수함이 들어 있다.

전강스님께서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그 속에 있는 여백과 그 여백 속에 있는 무수한 생명과 인간의 목소리가 있다. 그리고 골계와 갈등이 같이 있다. 이럴 때 내가 나를 설득하는 것이다.

내 속에 많은 내가 있다. 수많은 내레이터가 나온다. 그리고 이야기를 걸어온다. 그것이 여백이고 여운이다. 의미가 증식하고 번식한다. 분열한다.

의미는 비워야 한다. 그러면서 채우는 것, 역설이 여기에 있다. 스님의 말씀엔 내가 있고, 타자의 눈이 있다. 자아를 세계로부터 철저히 타자화 시키면서 현실을 돌파해 나가는 힘이 있다.

나는 이렇게 스님에 대한 자기 진리를 나름대로

아픔은 죽음 끝에서 소생해
생명의 경계 알아야 가능
스님은 동시에 생사 처방법
세상 소리까지 모두 담아내

생각하며 스님의 정심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종이는 의성산 참닥과 해남산 삼지닥을 3:7로 섞어 만든 수록한지를 사용했다. 밑그림은 버드나무를 태워 만든 목탄으로 간략하게 그렸다. 그리고 유탄으로 간략하게 그린 선을 정리하면서 지우고 생성시켜 함축된 스님의 성정을 찾아갔다. 이미지가 어느 정도 구체화 되자, 비수가 없는 담박한 필선으로 인물의 전체 이미지를 단순화시켜 요약적으로 그렸다. 이 때 윤곽선은 얼굴과 손의 경우 육색으로, 옷과 주장자는 먹을 사용하였다.

스님의 얼굴과 손은 더 이상 그릴 수 없는 단계까지 그렸지만 상대적으로 옷은 더 이상 지울 수 없는 정도의 단순함을 동시에 구현하고자 했다. 윤곽선만으로 스님의 인상과 그림의 인상이 방불하다 생각 될 즈음 종이를 뒤로 돌려 뒷면에서 그리기 시작했다. 배채법이다. 스님의 정신세계를 그리는데 주요하게 선택하여 적용시킨 형식이다.

그 색은 특히 얼굴과 손 등 피부에 집중하였는데 뒷면에서 칠한 안료가 앞면으로 우러나와 은은한 피부 질감이 살아나도록 했다. 이때 안료는 옅고 투명한데 여러 번 칠하여 물감 층을 쌓아 나가는 조선시대 초상화의 전통을 따랐다. 배채법은 우선 채색을 보다 선명하게하면서 변색을 최소화하고 안료의 박락을 막아 보존성을 높여 주는데 있다. 사용한 안료는 불교의 성지인 둔황에서 구해 온 황토를 사용하였다. 눈동자는 고려 조선조의 초상화 전통에 따라 호분을 사용하여 맑고 청수한 눈빛을 나타내기 위해 노력했다. 벨? 모자와 법복도 담묵으로 은은하게 배채 하였다. 그러면서 주장자만은 먹만으로 그려 악을 물리치는 도구와 상징으로서의 강한 의미를 흑백의 대비로 높이고자 했다.



전강 대선사 진영, 종이에 수묵 채색, 140X72cm, 2015
스님은 자아를 타자화 시켰다.

예술은 인간의 사유 구조 안에서 대상을 이해하고 형식화 하는 것이다. 인간에 대한 이해 없이 예술은 존재하기 어렵다. 또한 인간에 대한 철학 없이 인식이 확장 될 수 없다.

스님의 법문은 온몸으로 삶을 치열하게 쓴 시이다. 치열하게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법문이다. 스님의 모습을 보면 우주 삼라만상의 기운이 작동한다. 생명의 소리이다. 생명의 세계이다. 頂門一鍼, 突兀之筆, 무정한 사물과 교유하는 스님에 대한 그리움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화엄경 논강
(華嚴經 論講)

청량소 + 통현장자의 화엄론 +
진귀스님의 진귀론으로
통합 논강을 합니다.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1년차)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2년차)

진귀스님의 화엄경 책은 「붓다북」이나
「화엄경강원」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 우리은행 1005-002-700714 (화엄경강원)

화엄경은?

- 한국 불교 실천수행의 주류는 선 이요, 이 선의 사상적 토대가 되는 것이 곧 화엄사상이다.
- 화엄사상의 근간은 선정삼매를 바탕으로 하며
- 화엄경은 세존께서 해인삼매에 드시어 증명하시고 문수보살이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하면서 각 설주 보살들께서 깨달은 경계를 설한 경전이기에 수행하는 모든이들은 화엄경을 수행나침판으로 삼아야만 부처님의 법맥이 무엇인지? 알아가며 자신들의 수행법으로 수행정진 할 수 있을 것이다.
- 2015년 현재 대한민국의 불교 수행현실은 세속적 어려움 못지 않게 일부 소수의 수행자들을 제외하고 대다수 수행자들은 각종 수행 고난과 병통 그리고 어디로 나아갈지 몰라 방황 하고 있다.
- 이러한 오탁악세에 화엄경은 수행자들에겐 감로수와 같음에도 10중 9은 화엄경을 멀리하고 잇고 오래 전 대교과에서 잠깐 본게 전부 다인게 한국 수행자들의 현실이란게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 출가 수행자나 재가 수행자 중, 기 인연되어 화엄경을 항상 가까이 두고 선교쌍수하는 수행자 분들은 혹 원생신으로 이 땅에 오신분이거나 선근공덕이 수승하여 부처님으로 부터 곧 수기를 받을 수행자 일것이다.

괴자진귀

화엄경 강원 : 문의 1899~9532

자연의 향으로  를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불교양초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신제품



실외 양초 공양집



소이(SOY) 왁스양초
미국산 LOTUS 향초
· 로터스 양초 특징 :
① 그을음이 거의 없습니다.
② 대두(콩)에서 추출한 순수식물성입니다.
규 격 : 59Ø × 18㎜
연소시간 : 60 ~ 70시간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법당에서 초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 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031)766-0242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골길 131-14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www.shcandle.com